

변화 선택한 美 경제 '3대 키워드' 뜯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5일(현지 시각) 참모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시카고 중심가 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부시정부 신뢰도 바닥 **신용 회복**
최소 비용에 최대 효용 **가치 지향**
규제 해제가 위기 촉발 **규제 회귀**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미국 경제에 신용과 가치 그리고 규제를 강조하는 3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6일 코트라의 미국 금융 위기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 컨셉트가 '신용 회복', '가치 지향', '규제 회귀' 등 3가지로 요약된다면서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들 키워드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용 회복=미국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로 신용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미 무너진 정부의 신용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미국 시장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도 이에 대한 수요자도 없고 인수자도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하다고 믿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나가는 것을 본 미국인들은 어떤 기업도 100% 믿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건설한 기업들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는 바람에 이들 기업이 신용 위축으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업체들은 바이어나 거래처를 믿지 못하고 재정난이나 운영상태를 공식 또한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나

서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심각한 자금난 소문이 도는 바이어 업체들에 대해 끊임없이 파산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금결제 능력까지 확인하고 있다. ▲가치 지향=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의 가치 지향적인 태도가 점차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인들은 상품, 서비스, 기업 가치 등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지출 대비 효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강하다. 내실 있고 튼튼한 기업의 채권도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채권 매수를 미루며 바닥을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추세다. 기업 자금운용 면에서는 선택적 가치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 더욱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 대비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는 소비태도를 보이면서 가격이 구매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회귀=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 해제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금융위기로 비롯된 미국 경제 파국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규제철폐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까지 이런 주장에 동의함에 따라 오바마 정권에서는 금융 산업이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시의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엔 집권한 오바마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카드를 내놓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美 한인 1세 첫 직선 시장 탄생

강석희씨 어바인 시장 당선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한인 1세로는 처음 직선시장이 탄생하는 등 미주 동포들이 잇따라 정계에 진출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 시장에 도전한 강석희(55) 현 시의원은 5일 새벽까지 계속된 개표에서 접전 끝에 52%를 득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강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뒤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세대로 미국에서 한인 1세 첫 선출직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미주 한인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다. 지금까지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장을 지낸 적 있지만 직선제 시장은 아니었고, 지난 2005년 선출된 최준희(37) 뉴저지



주 에디슨시장은 세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5세대로 분류된다. 강 씨는 1977년 고려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전자유통업계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고, 1993년 한인장학재단 이사로 시작으로 한·미민주연합회 회장 겸 오렌지 카운티 한·미연합회 이사장 등을 거쳐 2004년부터 어바인 시의원으로 활약해왔다. 그는 시의원 당선 후에도 시의회에서 투표표 뽑는 부시장에 3년 연속 선출되는 등 지역사회와 동료 정치인들 사이에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7월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한인 등 아시아계의 표밭을 중점적으로 다져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재협상에 무게... 車시장 개방 요구 거셀 듯

■ 한미 FTA 어떻게 되나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경제관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원칙 전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미 FTA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온 오바마와 민주당이 새 행정부를 꾸리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FTA 재협상 가능성을 좀 더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FTA가 타결됐을 무렵부터 전반적인 FTA, 특히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언행들이다. 경선 본격화 전인 지난해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온 그는 올해 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는 아주 결합 있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오바마의 그간 행적뿐 아니라 미국이 처한 경제상황도 변수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던 자동차 빅3는 판매격락과 자금부족으로 끊임없는 파산위기에 시달리며 연방정부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폐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부 수정 요구를 전망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 확대 보장조치다. /연합뉴스

오바마 "경제부터 직접 챙긴다"

초대 재무 곧 공개... G20 회에서 경제 구상 제시 가능성도

미국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미국 금융 위기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오바마 승리의 배경으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이 경제 회복을 이끌어 달라는 미국인들의 주문이었던 만큼 오바마 당선자가 한시라도 빨리 경제 문제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

마 주도의 경제 대책은 지난달 그가 주장했던 1천7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다. 대신을 앞두고 휴회했던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는대로 오바마 당선자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미 시행된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 구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기초가 뉴딜 정책 이후 최대 수준의 경기 부양을 기반으로 한 감독 강화와 '큰 정부' 지향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한 재정 상태에서는 오바마 당선자가 많은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banner for 'Korea Real Estate' (KOREA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grid for 'Korea Real Estate' (KOREA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prices and details.